

전통춤의 대중화에 관한 연구

최석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전수교육조교
e-mail:csk1544@hanmail.net

A Study on the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Dance

Suk-Kwon Choi

*Daej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5
SeungMu Heritage Skills Teaching Assistant

요약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사회에서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전통춤 관련 무형문화재 및 전수조교 등 5인을 선정하여 전통춤의 대중화에 대한 연구질문을 통해 심층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화 자본과 관련지어 전통춤의 대중화의 가능성과 대중화 증진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문화 자본에 대해 경험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서구 사회의 문화적 자본은 그들의 역사적 특성이 반영되고 고급과 저급의 단편적인 문화적 위계로 구분하였고,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비판적 시각을 보인 학자들은 문화적 자본에 대한 기준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들 중 한명인, 부르디외(1977)는 경제적 위치, 사회적 지위, 상징 자본을 문화적 지식 및 기술과 연결 짓는 문화 재생산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고안해 냈다.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기제를 밝히고, 개개인의 특수한 환경적 배경에 따른 체화된 형태(아비투스)의 전통춤의 경험, 즉 문화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통춤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자본 증진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의 세심한 감정이나 변화, 생각 등은 양적방법인 설문지의 문답으로는 알기 어렵고 계량화시켜 측정

하기 어려운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술적 경험 혹은 예술적 가치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통해 예술적 경험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데 장점이 있어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통춤 관련 무형문화재 및 전수조교 등 5인을 선정하여 전통춤의 대중화에 대한 전문가의 검수를 거친 연구질문을 통해 심층연구를 하고자 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기제를 밝히고, 개개인의 특수한 환경적 배경에 따른 체화된 형태(아비투스)의 전통춤의 경험, 즉 문화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통춤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자본 증진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사회에 서양의 춤과 음악은 고급문화라 칭하며 한국사회에서도 고급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통춤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통춤은 대중적인 문화로서 진입은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통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통춤에 대한 문화자본지수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Dongsoong Han, University Education and Conten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42, pp9-24, 2016.
- [2] Na-Rae Bae, Study of an Effect of Korean Dance for Middle-Aged Womens as a Culture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pp186-192, 2016.
- [3] Bo Rahm Suh, Ha Rim Jang, Taik Soo Hy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 Journal of kapahistory, 29, pp. 95-124, 2011